CREDIT BOND STRATEGY

2026. 4. 16

글로벌채권팀

김은기 팀장
(크레딧/해외채권 Analyst)
creditbond.kim@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크레딧 레터

4월 대규모 순상환에도 회사채 시장 우려가 크지 않은 이유

- 2월보다 높은 회사채 금리 레벨로 4월 회사채 순상환 규모는 예상보다 클 전망
- 과거 위기와 달리 낮은 CD/CP금리로 인해 회사채 대비 저렴한 자금 조달 가능
- 채안펀드의 투자 여력과 시장 안정화 정책 유지가 회사채 시장 안정에 기여

2월보다 높은 금리 레벨로 인해 4월 회사채 순상환 규모는 커질 전망

올해 1분기를 제외하고, 4월은 가장 많은 규모의 회사채 만기(일반 회사채 기준 10.7조원)가 도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회사채 발행 금리 레벨(최근 회사채 AA-, 3년물 4.0%)은 올해 순상환이 많았던 2월(3.73%)보다 더 높다. 게다가 미-이란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주저하고 있다. 미-이란 사태의 여파로 인해 4월 발행을 준비하려는 기업들의 약 절반이 4월 발행을 포기하고, 차기 발행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따라서 4월 회사채 순상환 규모는 2월 3.1조원보다 큰 4~5조원을 추정하고 있다.

과거 위기와 달리 낮은 CD/CP금리로 인해 저렴한 자금 조달 가능

2월 3.1조원의 순상환에 이어 4월에도 큰 규모의 순상환이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미-이란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위기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회사채 시장 상황이 과거 코로나19와 레고랜드 사태와는 크게 다르다. 기업의 대표적인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CP금리가 크게 낮아, 단기 자금 조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국채 금리 상승에 비해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폭은 크지 않다. 작년에는 회사채 3년물 금리(AA-)와 A1등급 CP 3개월 금리 레벨이 비슷했으나, 최근에는 이 금리 차이가 약 100bp 이상 확대됐다. 기업들은 회사채 대비 CD/CP 등 단기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코스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국면으로 회사채 순상환으로 부족한 자금을 CP나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채안펀드 등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투자 심리 안정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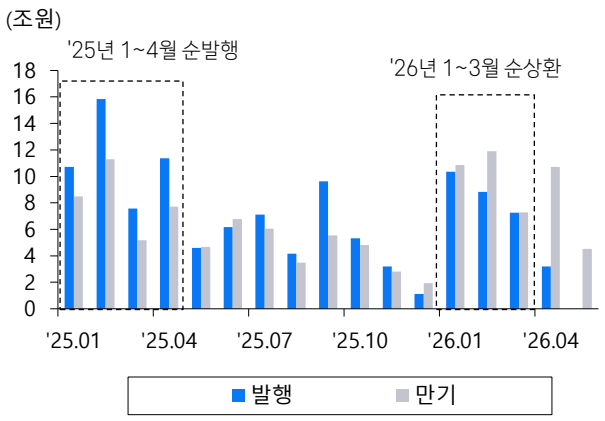
최근 회사채 발행 감소에도 단기자금 조달 수단이 있어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미-이란 사태의 장기화 시 언제든지 단기자금의 경색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채안펀드 등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판단된다. 최근 채안펀드 월 매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단기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7조원와 추가 캐피탈콜 9조원을 감안하면 약 16조원의 자금이 즉시 투입 가능하다. 위기 시 매수 주체가 사라지면서 자금 조달이 위협 받는 시기에, 즉시 자금 공급이 가능하는 점에서 채안펀드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은 회사채 시장에서 투자 심리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비록 AA등급 이상 매수지만, A등급에 대한 파급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전망이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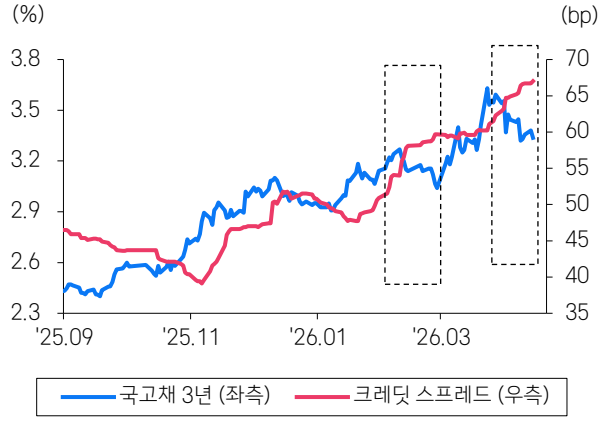
삼성증권

올해 4월 10조원 이상의 만기 도래에 대규모 순상환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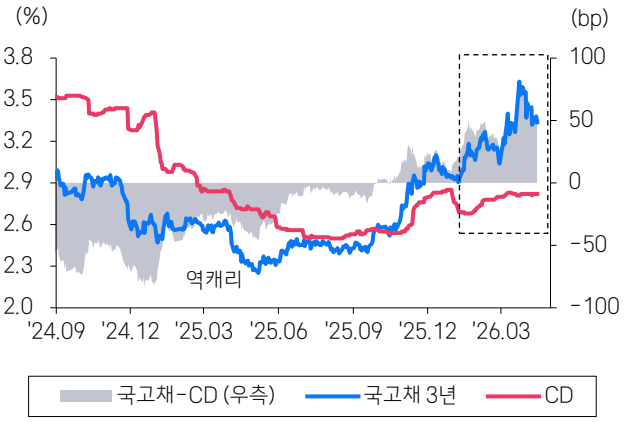
참고: 일반 회사채 월별 발행 및 만기 추이
자료: Infomax

올해 순상환 규모가 컸던 2월보다 최근 회사채 금리는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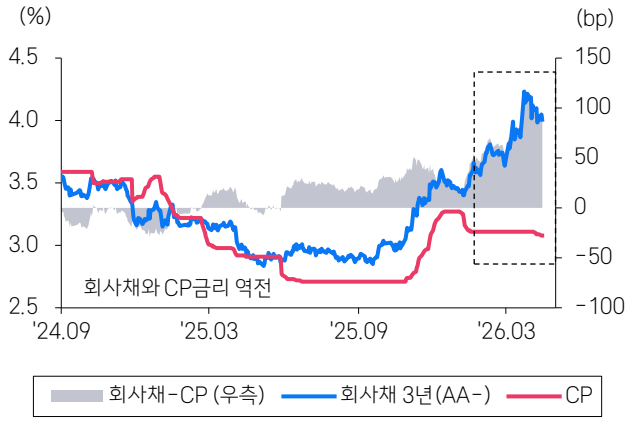
참고: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 AA-, 3년)
자료: Infomax

국채 금리 급등에도 상대적으로 CD금리 상승 폭은 제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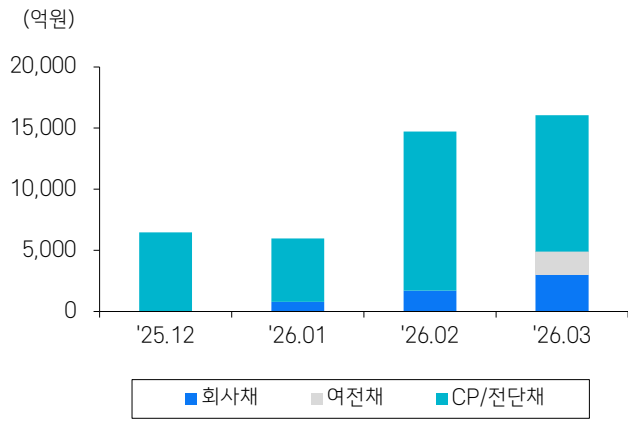
참고: 국고채 3년 금리 및 CD 3개월 금리 추이
자료: Infomax

회사채 금리 대비 CP금리는 1% 이상 낮아 단기 조달이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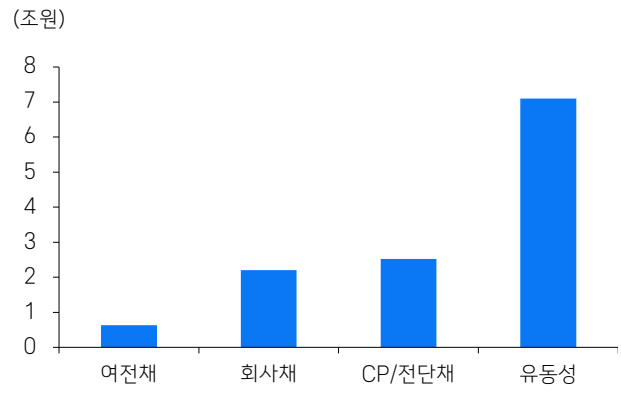
참고: 회사채 AA-등급 3년 및 CP A1등급 3개월 금리 추이
자료: Infomax

올해 2월 이후 채권 펀드 매입 규모는 커지고 있음



참고: 월별 매입실적
자료: 금융위원회, IBK자산운용

채안펀드 유동성과 캐피탈콜 감안 시, 추가 매입 여력은 충분



참고: 3월말 순자산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IBK자산운용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